

## 劍器舞服飾에 관한 研究

南 厚 先

대경전문대학 패션디자인과

### A Study on The Dancing Suit of Gumgee-Mu

Hoo-Sun Na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aekyung Junior College

#### 目 次

Abstract

I. 序 論

II. 劍器舞服飾의 變遷史

III. 劍器舞服飾의 構成形態

IV. 劍器舞服飾에 나타난 象徵性

V. 結 論

參考文獻

#### Abstract

Korean ritual dancing was doing in a royal court when an auspicious event happen in a country, a ritual ceremony was hold or reception for an envoy came from the other country was hold.

There were 53 kinds of ritual dancing in Korea. Gumgee-Mu was the one among of them. Yea-Reung(woman ritual dancer) were dancing Gumgee-Mu with a sword. For Gumgee-Mu they wore a Kaeja(快子), Haeksuyoi(挾袖衣). Above it they took a Jeandae(戰帶), Jeanlib(戰笠). The dancing suit's color had a harmony with well mixed. Lunar-Solar-Five-Natural(陰陽五行) of oriented traditional concept.

#### I. 序 論

宮中舞踊服飾은, 왕권정치의 본격적인 틀이 잡힌 삼국시대부터 宮中에 전문 무용가를 두어 나라의 慶事·宮中の 饗宴·外國의 國賓을 위한 宴會 등의 宮中잔치때에 입혀졌던 복식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53종류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감정에 알맞게 재구성되어 수십여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宮中舞踊服飾은 복식의 구

성과 색채·문양에는 다양한 음양오행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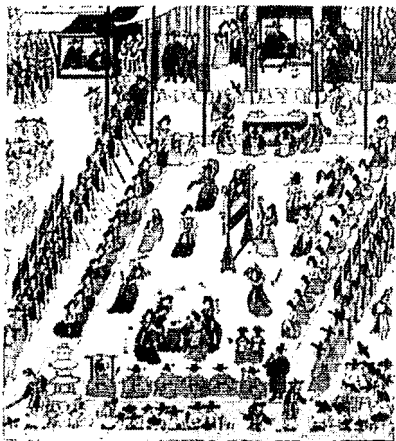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삼국시대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재현되고 있는 복식인 劍器舞服飾의 變遷史와 構成形態를 살펴보고, 服色에 스며있는 象徵性을 살펴 올바른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한다.

연구방법은 三國時代의 「三國遺事」·「三國史記」, 高麗時代의 「高麗史」, 朝鮮時代의 純祖 己丑·憲宗 戊申·高宗 丁亥·光武 辛丑·光武 壬

寅의 「進饌儀軌」·「進宴儀軌」·「進爵儀軌」의 文獻史料와 朝鮮後期 繪畫史料인 檀園 金弘道の 『平壤監司 饗宴圖』(1745-?), 慈園 申潤福(1758-?)의 『雙劍對舞圖』와 正祖 乙卯年 『圖幸乙卯整理儀軌班次圖』, 光武 辛丑年 『進宴圖』(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에서 劍器舞服飾을 살펴볼 수 있다.

## II. 劍器舞服飾의 變遷史

劍器舞는 劍舞 또는 黃倡郎舞라고도 하는 武舞이다. 기원은 「東京雜記」에 의하면 “新羅王을 위하여 百濟王을 죽인 花郎인 황창이라는 7세 소년을 슬퍼하여 신라 사람들이 황창의 얼굴과 같이 가면을 만들어 쓰고 춤을 추어, 죽은 아이를弔喪하는데서 부터 劍舞가 시작되었다.”<sup>1)</sup> 이 검무는 가면무로써 연회되기 시작하여 고려를 거쳐 조선 중기까지 계속 민간에서 전승되었다. 「進爵·進饌消進宴儀軌」에 나타난 것과 풍속화 도판에 나타난 검기무의 복식형태를 시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후기 英祖때 檀園 金弘道(1745-?)의 平壤監司 饗宴圖에 두 妓女가 上衣에 紫色·草綠色의 패자를 입고, 하의에 긴 藍色裳 위에 짧은 紅納裳을 입고 춤을 추고 있다. <圖 1> 또 慈



<圖 1> 金弘道の『平壤監司 饗宴圖』劍器舞



<圖 2> 申潤福의『雙劍對舞圖』劍器舞

園 申潤福(1758-?)의 雙劍對舞圖(圖 2)에서도 잘 살펴 볼 수 있다. 2인의 妓女가 검기무를 추는데, 좌측은 紅裳위에 黃色의 窄袖衫을 입고, 그 위에 안은 靑고 걸은 검은색인 패자를 입고 象毛를 단 藍色戰笠을 쓰고, 우측은 靑裳위에 초록색의 窄袖衫을 입고 그 위에 안은 홍색이고(앞자락이 뒤집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걸은 자주색 패자를 입고 藍戰帶를 띠었으며, 象毛를 단 藍戰笠을 쓰고 있다.

正祖 乙卯年 「圖幸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검무는 女妓 2인이 軍裝을 하고 양손에는 칼을 들고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추었다.”<sup>2)</sup>라 하였는데, 검기무의 옷은 軍服을 착용한 것으로 快子·挾袖衣이다. 이를 圖幸乙卯整理儀軌班次圖(圖 3-1, 3-2)에서 보면 검기무 여령은 양손에는 칼을 들고 上衣는 草綠窄袖衣·鶉靑快子·紅戰帶를 띠고, 下衣는 藍色裳을 길게 입고, 그 위에 앞에만 두르는 짧은 紅納裳을 두르고, 머리에는 藍戰笠을 쓰고 있다. 옆에는 검기무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 아박을 들고 있는 여령은 黃納衫·紅納裳·花冠을 착용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童妓 2인이 丹衣를 입고 있으며, 23인의 여령도 아박을 들고 있는 여령부와 같다.

純祖 己丑年 「進饌儀軌」劍器舞女伶은, 卷首圖式에는 戰笠·紫의紗掛子·戰帶라 있고, 卷3 工伶條에는 “전립·홍초상·아청갑사패자·남전대·초록혜”<sup>3)</sup>라 했다.

1) 「東京雜記」黃倡郎新羅人也, 諺傳年七歲, 入百濟市中舞劍, 觀者如堵, 濟王聞之召觀, 命升堂舞劍, 倡郎因刺王, 國人殺之, 羅人哀之, 像其容爲假面, 作舞劍之狀, 至今傳之.  
 2) 「圖幸乙卯整理儀軌」卷1, 樂草條.  
 “劍舞 兩女妓 著 軍裝 各持二劍 相對二舞”



<圖 3-1> 正祖 乙卯年, 『園幸乙卯整理儀軌班次圖』



<圖 3-2>

- 3) 純祖 己丑 「進饌儀軌」卷3 工伶條.  
“劍器舞呈才女伶載戰笠着紅綃裳鴉青甲紗快子藍戰帶草綠鞋”
- 4) 憲宗 戊申 「進饌儀軌」, 卷3 工伶條.  
“劍器舞呈才女伶載戰笠着紅綃裳鴉青甲紗掛子藍戰帶草綠鞋”
- 5) 憲宗, 戊申, 「進饌儀軌」, 樂器風物條.

劍器舞差備所着服飾四件所入散紅毛戰笠四件(內拱次藍雲紋張方一尺四片內線次黑三升一尺廣眞絲一錢縫造麻絲一錢)象毛四件筒四箇次(天銀七錢)孔雀羽二件筒二箇次(天銀九錢七分)櫻子次(藍眞絲二錢)紅氈微道里四箇造蜜花耳鏡四件櫻子次(藍眞絲二)

頂子四件內(二件留用二件所入天銀三兩五錢五分黃金六分銀絲八尺紅氈二片各方二寸)銀櫻子四件次(天銀四錢)櫻子四件次(宮 各長二尺廣二寸)蒙道里四件所入(每件黃花紋甲紗長十一尺)袖口次(每件紅鱗紋甲紗長五寸)同正次(每件白花紋甲紗長二寸)

戰服四件所入(每件內長次紅鱗紋甲紗長六尺五寸外拱次鴉青鱗紋甲紗長六尺五寸)

戰帶四件所入(每件藍鱗紋甲紗長八尺廣三寸各分合逢造紅黃藍眞絲各二錢)舞刀八柄所入(正鐵刀刀人箇各長一尺二寸廣一寸象毛二錢)

- 6) “劍器舞呈才女伶載戰笠着紅綃裳鴉青甲紗掛子藍戰帶五色汗衫黑鞋”
- 7) 高宗 丁丑 「進饌儀軌」卷2 工伶條.  
“劍器舞呈才女伶載戰笠着紅綃裳鴉青甲紗掛子藍戰帶草綠鞋”

憲宗 戊申年 「進饌儀軌」검기무여령은, 卷首圖式에는 戰笠·紫的掛子·金香挾袖·藍戰帶, 卷3 工伶條에는 “전립·홍초상·아청갑사패자·남전대·초록혜”<sup>4)</sup>, 卷3 樂器風物條에는 “검기무전립4건…전대4건”<sup>5)</sup>라 했다.

高宗 戊辰年 「進饌儀軌」검기무 여령은, 卷2 工伶條에는 “전립·홍초상·아청갑사패자·남전대·오색한삼·흑혜”<sup>6)</sup>라 했다.

高宗 丁丑年 「進饌儀軌」검기무 여령은, 卷首圖式에 전립·아청갑사패자·남전대·금향협수라 있고, 卷2 工伶條에 “전립·홍초상·아청갑사패자·남전대·초록혜”<sup>7)</sup>라 있다.

高宗 丁亥年 「進饌儀軌」검기무 복식은, 卷首圖式에 “전립·아청패자·금향협수·홍초상·남전대·초록혜”라 있다. 高宗 丁亥年 「進饌儀軌」卷首圖式(圖 4)에 나타난 검기무로 純祖 己丑·憲宗 戊申·光武 辛丑 「進饌儀軌」그림과 거의 같은 형태로 4인의 여령이 춤추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림을 통해서는 복색을 규명할 수 없었지만 <圖 5>와 춤추는 동작이 같아 여기서 복색을 확인할 수 있다.

高宗 壬辰年 「進饌儀軌」검기무복식은, 卷3 工伶條에 “전립·아청갑사패자·홍초상·남전대·초록혜”<sup>8)</sup>라 있고, 卷3 樂器風物條에 “검기무복식은 紅毛戰笠(안감은 藍雲紋緞으로 하고, 象毛·孔雀羽·密花를 수식하고 紫的甲紗櫻子을 달았다.), 挾袖(黃花紋甲紗에 袖口는 紅鱗紋甲紗를 달고 同正은 白花紋甲紗로 함), 戰服(겉감은 鴉青鱗紋甲紗로 하고, 안감은 紅鱗紋甲紗로 함),

劍器舞



<圖 4> 高宗丁亥, 劍器舞



<圖 5> 光武 辛丑年「進宴圖」, 劍器舞

光武 辛丑年 7月 『進宴圖』 <圖 5>는 高宗 皇帝의 萬五旬을 祝賀하는 進宴도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원색그림이다. 검기무 4인의 여령은 양손에 象毛를 단 칼을 들고 있으며, 복식은 上衣는 황색의 挾袖衣 위에 아청색패자를 입고, 남전대를 띠고, 下衣는 길이가 긴 藍色裳 위에 길이가 짧은 紅綃裳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孔雀羽와 象毛를 단 전립을 쓰고 있다.

光武 辛丑 「進饌儀軌」 검기무 복식은, 卷首 圖式에는 “전립·아청갑사패자·금향협수·남전대”, 卷3 工伶條에는 “전립·홍초상·아청갑사패자·남전대·초록혜”<sup>10)</sup>, 光武 辛丑 「進宴儀軌」 卷3 工伶條에는 “전립·홍초상·아청갑사패자·남전대·초록혜”<sup>11)</sup>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圖 5>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초록혜를 신은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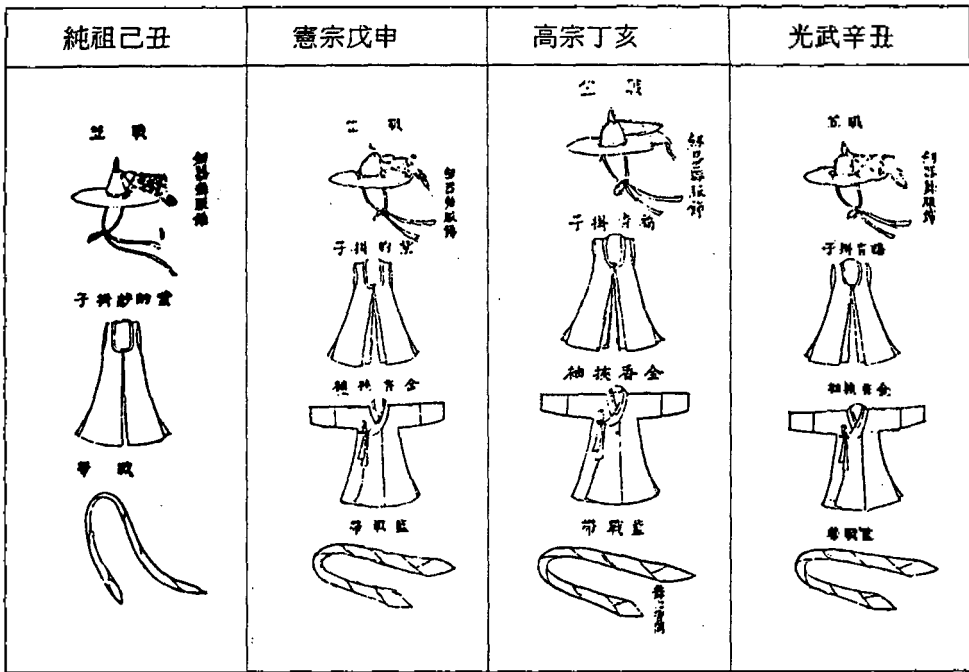
<圖 6>은 光武 壬寅年 쌍검기무를 추고 있는



<圖 6> 光武 壬寅, 雙劍器舞

戰帶(藍鱗紋甲紗로 함)로 구성되어 있다.”<sup>9)</sup>

- 8)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工伶條.  
戰笠着紅綃裳鴉青甲紗快子藍戰帶草綠鞋
- 9) 高宗 壬辰 「進饌儀軌」, 卷3 樂器風物條.  
劍器舞差備所着服飾四件所入散紅毛戰笠四立(內拱次藍雲紋緞方一尺四片藍真絲一錢貿用)象毛四件(銀筒四箇具)孔雀羽四件(銀筒四箇具)紅氍毹道里四箇造蠶花耳錢四件銀頂子四件紫的甲紗纓子四件(以上貿用)挾袖四件次(黃花紋甲紗四十四尺袖口次紅鱗紋甲紗三尺同領次白花紋甲紗半八寸貿用)戰服四件次(外拱鴉青鱗紋甲紗二十六尺內拱紅鱗紋甲紗二十六尺貿用)戰帶四件次(每件各藍鱗紋甲紗長八尺廣三寸五分貿用)舞刀八柄(具所入纓子次紅朱黃真絲各一兩五錢貿用)
- 10) 光武 辛丑 「進饌儀軌」 卷3 工伶條.  
劍器舞呈才女伶戰戰笠着紅綃裳鴉青甲紗快子藍戰帶草綠鞋
- 11) 光武 辛丑 「進宴儀軌」 卷3 工伶條.  
戰笠·紅綃裳·鴉青甲紗快子·藍戰帶·草綠鞋



<圖 7> 劍器舞服飾 變遷圖

모습이다. 쌍검기무이기 때문에 8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복식 형태는 光武 壬寅年 「進宴儀軌」 卷首 圖式에 “전립·아청갑사패자·남전대·금향협수”라고 있고, 卷2 工伶條에 “전립·홍초상·아청갑사패자·남전대·초록혜”<sup>12)</sup>라 있으며, 卷3 樂器風物條에 “劍器舞服飾은 紅毛戰笠(안감은 藍雲紋緞으로 하고 象毛·孔雀羽·蜜花·銀頂子·銀纓子·紫的甲紗纓子を 달음), 挾袖(黃花紋甲紗로 하고 同領은 白花紋甲紗로 하며 袖口는 紅鱗紋甲紗로 함), 戰服(겉감은 鴉青鱗紋甲紗로 하고 안감은 紅鱗紋甲紗로 함)”<sup>13)</sup>이라 있다.

### Ⅲ. 劍器舞服飾의 構成形態

- 12) 光武 壬寅年 「進宴儀軌」 卷2 工伶條.  
“劍器舞呈才女伶戰戰笠着紅綃裳鴉青甲紗掛子藍戰帶草綠鞋”
- 13) 光武 壬寅年 「進宴儀軌」 卷3 樂器風物條.

劍器舞差備所着服飾四件所入散紅毛戰笠四件(內拱次藍雲紋緞三尺質用)象毛四件孔雀羽四件紅氈微道里四件造蜜花耳鏡四件銀頂子四件銀纓子四件紫的甲紗纓子四件(以上質用)挾袖四件次(黃花紋甲紗四十四尺同領白花紋甲紗八寸袖口次紅鱗紋甲紗三尺)戰服四件次(外拱鴉青鱗紋甲紗二十六尺內拱紅鱗紋甲紗二十六尺)舞刀八柄

劍器舞는 가면무로써 연희되기 시작하여 고려를 거쳐 조선 중기까지 계속 민간에서 전승되다가, 朝鮮 28代 純祖때에 비로서 宮中의 朮才로 女妓에 의해 조선말기까지 전승되어온 것이며 宮中에 들어오면서 가면은 없어지고 1900년대부터 부러진 칼을 상징하여 칼이 짧아지면서 칼을 들리게 되었다.

검기무의 복식은 武服인 快子·挾袖衣·戰帶를 입고 戰笠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劍器舞 服飾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복식형태를 살펴보면 검기무의 상의는 협수와 패자를 입는데 패자의 색은 대부분

&lt;表 1&gt; 劍器舞服飾의 時代的 變遷

	출 처		상의	하의	대	관	신	기타
女伶	*正祖19년, (1795, 을묘) 「圓幸乙卯整理儀軌」		快子		戰帶	戰笠		劔刀
女伶	純祖29년, (1829, 기축) 「進饌儀軌」	卷首, 圖式	紫的紗快子		戰帶	戰笠		
		卷3, 工伶條	鴉青甲紗快子	紅綃裳	藍戰帶	戰笠	草綠鞋	
女伶	憲宗14년, (1848, 무신)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鴉青甲紗快子	紅綃裳	藍戰帶	·	草綠鞋	
		卷首, 圖式	紫的快子, 金香挾袖					
女伶	高宗5년, (1868, 무진) 「進饌儀軌」	卷2, 工伶條	鴉青甲紗快子	紅綃裳	·	·	黑鞋	五色汗衫
女伶	高宗10년, (1873, 계유) 「進爵儀軌」	卷2, 工伶條	紫的甲紗快子, 金香挾袖		·	·		
女伶	高宗14년, (1877, 정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鴉青甲紗快子	紅綃裳	·	·	草綠鞋	
女伶	高宗24년, (1887, 정해) 「進饌儀軌」	卷首, 圖式	鴉青快子, 金香挾袖		·	·		
女伶	高宗29년, (1892, 임진) 「進饌儀軌」	卷3, 工伶條	鴉青甲紗快子	紅綃裳	·	·		
女伶	光武5년, (1901, 신축) 「進饌儀軌」	卷3, 工伶條	·	·	·	·		
		卷首, 圖式	鴉青快子, 金香挾袖					
女伶	光武5년, 「進宴儀軌」	卷3, 工伶條	鴉青甲紗快子	·	·	·		
女伶	光武6년, (1902, 임인) 「進宴儀軌」	卷3, 工伶條	鴉青甲紗快子	·	·	·		

아청색이며 자주색 패자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협수는金香挾袖이며 기록이 없는 년도도 있으나, 검무는軍裝의 차림을 한 까닭으로 패자속에는 협수의를 입었다. 하의는 길이가 긴 남색상 위에 짧은 홍색상을 착용한 모습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으나 문헌상으로는 하의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원색 그림이나 흑백圖式에서 살펴보면 홍초상 아래에 길이가 남색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은 純祖己丑 憲宗戊申 高宗丁亥 光武辛丑 「儀軌」卷首 圖式에 나타난 劍器舞服飾을 圖表로 나타내면 <圖 7>과 같다.

이상에서 보면 純祖己丑 憲宗戊申 光武辛丑년에는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패자의 변화만 약간 나타난다. 正祖 乙卯年の 黃納衫이 高宗 丁亥년에는 金香挾袖로 변화했으나 금향협수는 좁은 소매에 황색의 직령으로 거의 같은 형태이고 명칭만 다르다. 패자도 아청갑사 패자에서 光武辛丑년에는 자적패자로 되었다.

다음은 검기무복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戰笠

戰笠은 氈笠이라고도 하는데, 속칭 병거지라고도 한다. 「氈」은 모를 사용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憲宗 戊申」에 劍器舞의 戰笠은 겉은 홍모로 하고 안은 남운문단이고, 정자에 상모와 공작우로서 장식하였다. 「光武 壬寅」에는 은정자로 장식하였다.

### 2. 金香挾袖

금향협수는 검기무와 무산향의 여령과 선유락의 집사가 입은 것으로 패자안에 입으며 우임의 형태이고 무가 없으며 옆이 약간 트인 직령의 소매가 좁은 袍이다. 검기무는 춤추는 동작에서 칼을 휘두르는 민첩함을 표현하기 위해 소매자락이 좁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己丑년에는 패자안에

입는 것이 없으나 신축년의 황색의 금향협수의를 입혀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협수는 몽도리라고도 하는데, 이의 재료는 황화문갑사로 하고, 수구는 홍린문갑사로, 깃은 백화문갑사로 한다.”<sup>14)</sup>

### 3. 袂子

挾袖衣위에 입는 패자는 중국 당고조가 처음으로 만든 반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답호, 배자, 전복, 몽두리라고도 한다. 형태는 길만 있고, 소매, 무, 앞섶이 없고, 양옆과 뒤슬기가 요부이하러 터져 있는 4자락의 옷이며 깃은 쌍깃으로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패자의 색은 아청색으로 하였으나 광무 신축년에는 자적갑사로 되어 특이한 점을 나타내나 이것은 특별히 색을 바꾸었다기 보다는 “패자의 재료는 걸감에 아청린문갑사, 안감에 홍린문갑사이다.”<sup>15)</sup>라고 있어, 대부분 패자는 겉은 청색, 안감은 붉은색인 것에서 얇은 천이 두겹으로 되면서 걸감의 청색과 안감의 홍색이 혼합되어 자색으로 보인 듯 하다. 憲宗 戊申年과 光武 6年 악기풍물조에 패자를 전복이라고 하였다.

### 4. 纏帶

劍器舞의 戰帶는 纏帶이며, 재료를 憲宗 戊申에 보면 남린문갑사(길이 8척, 넓이 3촌 5분)로 한다고 있다.

###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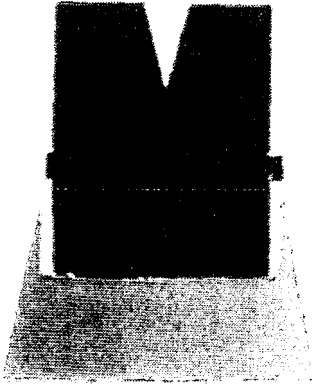
憲宗 戊申과 光武 壬寅년에는 舞刀를 8자루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劍器舞 女伶은 양손에 칼 한자루씩을 들고 추었음을 알 수 있다. 칼의 손잡이에 象毛를 단다.

검기무의 복색은 주로 청색계통이 많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춤의 성격이 칼을 들고 추는 男性的인 특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다른 무복색보다 덜 화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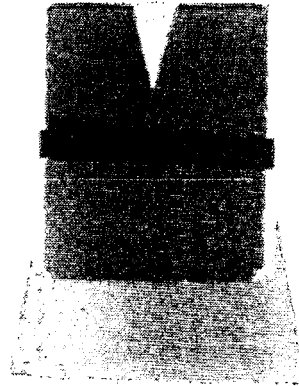
14) 憲宗, 武申, 進儀儀軌, 樂器風物條.

劍器舞差備所着所着服飾四件…散紅毛戰笠…紅氈微首里四箇…蒙道里四件(海件黃花紋甲紗, 袖口海件紅鱗紋甲紗, 同正海件白花紋甲紗)…戰服四件…戰帶四件…

15) 高宗, 光武 壬寅年, 進宴儀軌, 樂器風物條.



<圖 8> 아청색 패자와 협수의



<圖 9> 자적색 패자와 협수의

#### IV. 劍器舞服色에 나타난 象徵性

인간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양오행사상은 陰陽(天地)의 생성원리를 五行(五元素)과 결합시킨 동양고유의 사상이다. 즉 음양의 조화로 서로 상생·상극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sup>16)</sup> 음양오행사상의 상생·상극설은 일반복색<sup>17)</sup>과 같이, 궁중무용복색에도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궁중무용복색에도 나타나는데 그 중 검기무복색에 나타난 음양오행사상의 상생·상극의 조화를 살펴보면 검기무의 복색은 상의는 금향협수의·아청색의 패자(또는 자적패자), 하의는 홍초상, 대는 남전대로 구성되어 음양오행색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圖 8, 圖 9)

검기무복색을 그 구성별로 상생과 상극관계로 보면 <表 2>와 같다.

<圖 8>에서 보면, 상의인 패자의 아청색과 하의인 홍색상, 패자의 아청색 걸감과 홍색 안감에서 청·홍색의 상생관계를 이루고, 협수의의 황색 걸감과 홍색 소매부리에서 황·홍색의 상생관계를 이룬다. <圖 9>의 紫의 패자는 걸의 청색이 안감의 홍색에 비쳐져 생긴 間色을 표현한 것 같다. 즉 안감과 걸감의 대비, 상의와 하의의 조화, 소매와 끝동의 대비, 상의와 대의 배합 등에 음양오행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검기무의 복색은 주로 청색계통이 많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춤의 성격이 칼을 들고 추는 男性的(武的)인 특성으로 입혀졌고, 다른 무복색보다 덜 화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表 2> 검기무복색과 음양오행

戰笠	掛子	挾袖	裳	戰帶	鞋	비 고
걸감(홍색)	걸감(아청색)	걸감(황색)	홍색	남색	초록색	홍·남
안감(남색)	안감(홍색)	소매부리(홍색)			흑 색	아청·홍
공작우(홍색)		동정(백색)				황·홍
纓子(남색)						상생 상생 상생

16) 李翼「星湖僿說」, 卷5, 萬物門條.

禮記云 金色白 金克木 木色青 青白間色碧 木克土 土色黃 青黃間色綠 土克水 水色黑 黃黑間色 水克火 火色赤 赤黑間色紫 火克金 赤白間色紅

17) 金永淑,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研究”, 1988, 淑明女子大學校博士 學位論文



## V. 結 論

文獻史料와 繪畫史料를 통해본 결과, 劍器舞는 三國時代에 유래되어 현재까지 재현되고 있는 궁중무용으로 武舞形態의 춤이다. 服飾의 形態는 軍裝(快子·挾袖衣·戰笠·戰帶·紅綃裳·草綠鞋)을 하고 있으며, 劍器舞服色에는 東洋思想인 陰陽五行思想이 잘 내포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1. 上衣와 下衣의 관계는 雅胄快子-紅色裳으로相生色으로 되어 있고, 상의는 협수의(책수의)의 걸감과 안감은 홍색-남색·초록-홍색, 上衣의 걸감과 袖口와의 관계는 황색-홍색의 상생색관계이고, 하의인 紅色裳과 藍戰帶 또한 상생색의 관계로 되어있다.
2. 戰笠은 걸감과 안감의 관계가 홍색-남색, 걸감과 纓의 관계는 홍색-남색의 배색으로 상생색관계로 이루어져있다.
3. 검기무는 경사로울 때 주로 사용된 춤이므로, 원색의 화려한 조화와 더불어 주로 상생색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가 미흡하지만 올바른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1. 「高宗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2. 光武 壬寅年, 「進儀儀軌」3卷,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1902.
3. 純祖 乙丑年, 「進儀儀軌」4卷,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1829.
4. 憲宗 戊申年, 「進儀儀軌」4卷,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1848.
5. 「憲宗實錄」→「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6. 「東京雜記」
7. 「史記」
8. 「三國史記」
9. 「三國志」
10. 成倪, 「傳齊叢話」→高麗大學校附設民族文化研究所譯註, 「破閑集」高麗大學校附設民族文化研究所, 1975.
11. 李翼, 「星湖僊說」
12. 一然, 「三國遺史」, 影印本, 民族文化推進會, 國學古典叢書2. 1973.
13. 鄭麟趾等選, 「高麗史」, 影印本, 景仁文化史, 1976.
14. 車柱環譯「高麗史樂志」, 乙酉文化社.
15.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7.
16.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研究」, 一志社, 1987.
17. 김원용외, 「風俗畫」, 中央日報社, 1991, 「韓國의 美 19」
18.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악학계범」, 권1,2 민문고, 1979.
19. 成慶麟, 「朝鮮의 雅樂」, 博文出版社, 1947.
20. 成慶麟, 「韓國傳統舞蹈」, 一志社, 1979.
21. 劉頌玉, 「朝鮮時代 宮中儀軌服飾」, 修學社, 1991.
22.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8.
23. 李八燦, 「리조복식도감」, 東文選, 1991.
24. 張師助, 「韓國舞蹈概論」, 大光文化社, 1984.
25. 車柱環譯, 「高麗史樂志」, 乙酉文化社, 1972, 乙酉文庫93.
26. 金東旭外, 「處容研究論叢」, 蔚山文化院, 19-89.
27. 김영숙, 「韓國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 1988.
28. 김영자, 「궁중여무복색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조선조 후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4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29. 杉本正年, 「中國服飾考」, 「衣生活 研究」第71號, 1981.
30. 吳世恩, 「三國時代의 文獻上에 나타난 色彩」, 청주대 석사학위, 1989.
31. 林瑞雲, 「古代 東洋 服色制度의 比較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 1983.
32. 蔡真英, 「韓國傳統 舞蹈服의 文獻的 考察」, 숙명여대 석사학위, 1985.